

부산지역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about Foreign Investment revitalization in Busan

김경희(Kyoung-Hee Kim)

부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이학승(Hak-Seung Lee)

안산공과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외국인직접투자 개요 | 참고문헌 |
| III. 부산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제성
효과분석 | Abstract |

Abstract

This paper want to do the feasibility analysis that it uses financial statements in order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to enter in the Busan area. And this paper would be presented the plan about foreign investment revitalization.

To that end, this paper would be deployed the following methods and scope. First, It defines to the concept of foreign investment, foreign investment region, and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 wish to loot at the economic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through foreign investment. Second, this study's scope would be set up foreign investment area of Busan, and investigate the land development cost of invested enterprises, construction cost of enterprises burden, expected revenues, etc. Third, it classified three industry for the feasibility analysis of entered enterprises, so would be yield industry-specific analysis using financial statements to be pre-research. Forth, this paper is suggested a revitalization plan for effort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for the future through economic effective analysis of foreign invested-enterprises.

Key Words : Foreign investment, feasibility analysis, economic effects

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시기에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전략으로 외국기업들을 유인하여 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키면서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 단순한 외국자본의 도입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수출증대, 첨단기술 도입 등 여러 채널에 걸쳐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보다 계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세계 국가들은 다국가가 아닌 양국가간 자유무역을 실행하기 위해 FTA체결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비중에 90%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지역은 FTA체결에 따른 수혜를 십분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부산시는 2005년도에 부산과학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외국인전용투자지역을 조성하여 투자계획에 맞춰 국내 법인설립, 입주계약, 공장착공 등 투자실행을 통해 첨단산업분야의 여러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지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입주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타당성 분석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산지역의 외국인투자활성화 방안에 관해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부산지역 외국인투자전용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중심으로 타당성 분석을 시도하여 입주기업의 건전성 등을 분석하고, 부산지역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방법과 범위로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투자의 개념과 외국인투자지역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외국인투자를 통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부산의 외국인투자지역을 연구범위로 설정하고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의 토지조성비, 기업부담 건설비, 예상 매출액 등을 조사하고, 입주기업의 업종과 기업특성을 조사한다. 셋째, 입주기업들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3가지 산업으로 분류하여 미리 조사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산업별 기업의 타당성 분석을 산출하고자 한다. 넷째,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들의 경제성 효과분석을 통해 향후 외국인투자유치노력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외국인직접투자 개요

1.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커지면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도 크게 증대되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국내활동은 1962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1991년까지 14억 달러에 불과하였지만 외국인직접투자활동이 외환위기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152억 달러로 외국인직접투자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2004년에 128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는 듯 보이다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다소 감소하였다.

2007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대비 31.6%나 감소한 34억 달러로써 2007년 투자유치목표액 110억 달러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며, 이 가운데 기업 인수·합병(M&A)투자는 9억9,700만 달러로 61.3% 급감했다.

이렇게 감소한 원인에는 한국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 매물(728건→345건)이 줄었고, 외국인들의 대규모 투자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수·합병(M&A)에 1억 달러를 넘는 규모의 대형투자마저 부재했기 때문이었다.

〈표 II-1〉 외국인직접투자규모

(단위 : 억 달러, %)

구분	1991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6 상반기	2007 상반기
외국인직접 투자규모	14	155	152	113	91	65	128	116	112	49	34
증감율	-	75.5	△1.9	△26.0	△19.4	△28.8	97.7	△9.6	△2.6	-	△31.6

주 : 외국인직접투자규모 연도별 투자실적-신고기준
 자료 : 산업자원부(2007)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약 8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새로운 지역격차의 요인으로 발생하였다. 즉, 2001년 이후 투자유치기업들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전체 투자건수 중 총 84.2%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컨설팅과 같은 사업지원서비스의 이용이 수도권 업체에 집중됨으로써 지역발전과의 연계성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사업장 설립과 합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고, 공장설립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그나마 지자체 중 부산지역의 경우 공장설립은 경상남북도에 이어 5번째 순위에 위치하였지만, 국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립하는 ‘그린 필드 형(Greenfield)’투자는 서울, 경기도에 이어 3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3번째로 투자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 형태별·지역별 투자건수 비중

(단위 : %)

지역	Greenfield	공장설립	사업장설립	M&A	합계
서울	62.6	26.3	66.2	56.6	61.9
경기도	22.3	33.2	21.3	22.3	22.3
경상북도	0.9	3.8	0.6	1.6	1.0
경상남도	1.8	7.8	1.3	1.9	1.8
부산	3.1	3.7	3.0	4.0	3.2
대구	1.8	1.9	1.7	1.5	1.7
전라북도	0.4	0.7	0.3	0.4	0.4
전라남도	0.9	2.5	0.8	1.2	1.0
광주	1.0	4.5	0.7	1.6	1.1
충청북도	1.4	6.9	0.8	2.8	1.5
충청남도	1.5	4.5	1.2	3.5	1.7
대전	0.7	1.4	0.6	0.9	0.7
강원도	0.5	0.7	0.5	0.8	0.5
제주도	0.2	0.0	0.3	0.3	0.2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은행(2007),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과제」, p.26 재인용

2) 부산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부산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환경조성이 이루어져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부산과학산업단지에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사지역이 있으며, 이곳은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기분이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인 합작기업으로 투자금액 최소 5천만 원 이상인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데, 입주계약시점까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부산지역 외국인직접투자는 2006년 10월말 현재 27건으로 43.3억불을 유치했다. 그리고 부산과학산업단지 내 위치하고 있는 지사외국인전용 투자지역은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조선기자재 등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7년 1/4분기 현재 77.9%의 분양률, 10건의 입주계약과 함께 258명의 고용, 그리고 104억 원의 생산 및 5억불

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다.)

〈표 II-3〉 지사외국인투자지역 분양현황

개발유형	단 지 명	총면적	분 양 현 황(단위 : 천m ² , %)			
			분양대상	분 양	미분양	분양률
06.1/4분기 완료	지사(외)	298	298	116	182	38.9
07.1/4분기 완료	지사(외)	298	298	232	66	77.9

자료: e-클러스터부산(2007.7),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분기별 데이터작성

〈표 II-4〉 지사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 및 고용현황(분기별)

(단위 : 건, %, 명)

단 지 명	입주계약	가동	휴폐업	가동률	고 용 현 황		
					계	남	여
06.1/4 지사(외)	2	-	-	-	-	-	-
06.2/4 지사(외)	3	-	-	-	-	-	-
06.3/4 지사(외)	6	-	-	-	-	-	-
06.4/4 지사(외)	9	2	-	22.2	22	20	2
07.1/4 지사(외)	10	4	-	40.0	258	247	11

자료: e-클러스터부산(2007.7),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각분기별 데이터작성

〈표 II-5〉 지사외국인투자지역의 생산 및 수출규모

(단위 : 억원, 백만불)

단 지 명	생 산	수 출
06. 3월말 누계 지사(외)	-	-
06. 6월말 누계 지사(외)	-	-
06. 9월말 누계 지사(외)	-	-
06.12월말 누계 지사(외)	12	-
07. 3월말 누계 지사(외)	104	5

자료: e-클러스터부산(2007.7),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각분기별 데이터작성

1) 분석을 하고 있는 현 시점(2007년 2/4분기)에는 입주기업은 12개이고, 입주예정인 기업이 1개 기업이므로 총13개의 기업이 입주하거나 입주예정인, 2007.7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결정요인

1)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결정요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투자유인효과보다 투자유발효과가 더 큰 국가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며, 투자목적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현지국에 투자하는 동기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²⁾ 첫째, 자원지향형 투자는 천연자원을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투자로서 중동의 산유국, 인도네시아의 입업 등에 대한 투자가 전형적인 자원 지향형투자이다. 둘째, 시장지향형은 지역 간 경제블록화로 인해 무역마찰이 심화되어 국가 간에 발생하기 쉬운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현지국내에 생산시설을 마련하여 직접조업활동을 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셋째, 수출지향형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대규모 공업단지 등 최소생산비가 보장되는 현지국에 생산을 집중하여 제3시장에 수출하는 투자형태를 의미한다. 넷째, 기술 및 경영의 노하우지향형은 선진국의 첨단기술과 선진기업의 마케팅능력과 경영시스템의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투자를 말한다.

〈표 II-6〉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결정요인

요인		내용
경제 요 인	현지시장 요인	· 현지수요의 크기, 소비자의 소득수준, 실질구매력 정도 등
	생산비용 요인	·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기술수준 요인	· 현지 산업기술 발전정도, 기술수준 등
	천연자원 요인	· 광물, 목재, 석유 등 천연자원 부존정도 등
비경제적 요인		· 정치적 안정, 행정절차, 생활환경, 사회문화적 여건, 정부의 거시경제 및 산업정책 방향(진입, 퇴출, 지분, 내국민 대우), 기업지배구조, 기업문화 등

자료 : 충북개발연구원(2006), 전계서 재인용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³⁾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세계지역 블록, 국가, 지역 등 계층적 공간단위에 따라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이 투자대상국 선정단계에서 1인당 GDP, 노동비용, 정치적 안정성, 정부의 개방성 및 조세·관세제도를 비롯하여 투자대상국의 기업환경, 관광객 수, 수출비중 등이 주요한 입지결정요인으로

2) 충북개발연구원,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 및 충북경제 파급효과 분석”, 2006, pp.7~8.

3) 국토연구원,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연구”, 2002, pp.19~20.

작용한다. 그리고 투자국내 지역단위의 입지결정요인에는 시장·고객접근성, 국가간선망과의 연계성, 노동의 질 및 노동력 확보,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및 자치단체의 태도 등이 주로 작용한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투자동기, 투자진입방식, 투자비율, 투자국, 생산공정단계 및 생산품 등 조직 특성도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투자전략 및 동기가 생산비절감형 내지 생산거점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인 경우는 노동력과 임금수준, 공장부지 확보 및 가격, 접근성 및 인프라 수준 등이 주요한 입지결정요인이 된다. 반면, 시장개척형 및 판매형인 경우는 국내 관련시장규모와 대도시 근접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선진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첨단기술 지향형의 경우는 대학 및 전문가 확보여부, 관련 첨단기술업체 및 연구기관의 집적도, 혁신지향적인 사회제도를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진입방식에 따라 인수합병(M&A)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신설투자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는 달리 기존업체의 입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독자적인 입지결정요인은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투자비율이 높을수록 투자대상국내 입지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표 11-7〉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해외 실증연구결과 : 지역단위

구분	입지결정요인	공간선정단위
Coughlin et.al (1991)	· 시장접근성, 도로, 공항, 철도, 항만연계, 노동시장조건 (인력구득가능성, 노동생산성), 주정부의 유치활동 및 세출 규모, 가용토지면적, 지역산업구조(제조업고용)	주(미국)
Baghi-Sen & Wheeler(1989)	· 인구규모, 인구성장, 1인당 소매판매액	대도시(미국)
Friedman et.al (1992,1996)	· 해외시장에의 접근성, 대규모 국내시장, 낮은 임금인상율, 낮은 주 및 지방세율, 가용인력규모/시장잠재력, 임금,숙련 노동자, 건설비용, 항만 등	주(미국)
Woodward(1992)	· 토지면적, 인구밀도, 집적경제, 인프라수준	주, 카운티 (미국)
J.A.List(2001)	· 시장규모, 접근성 및 가용토지, 투입비용, 환경규제	카운티(미국)
Xin&Ni(1995)	· 시장규모, 임금수준, 교육수준, 산업화정도, 교통 및 통신 시설, 생활환경, 연구수준	-
PA Cambridge Economic Consultant(1995)	· 입지구득용이성, 노동력 구득용이성, 기존업체 존재여부, 숙련노동력, 저임금노동력, 재정인센티브, 용수·에너지 등 기반시설 활용가능성, 도로 및 철도연계, 고객접근성, 공항 접근성, 훈련공급여부, 좋은 산업연계관계정착, 공급자와의 접근성, 지역이미지 등	지역(영국)
L.K.Cheng et.al	· 시장접근성, 노동비용, 실업·노조 등 노동시장여건, 인프	성(중국)

(1987,2000)	라의 가용성 및 질적수준, 집적경제기반, 지방정부유치 정책 및 인센티브/대규모 지역시장(지역소득), 인프라기반 시설(도로밀도), 정부지원정책	
Q.Sum et.al(2002)	· 시장수요 및 시장규모, 인프라수준, 지역산업화수준, 외국 인직접투자기업의 집적수준, 노동력수준, 노동비용, 연구 개발수준 등	성(중국)
기타	· 인프라구득가능성, 노동여건, 시장접근성, 재정인센티브등	지역(영국)

자료 : 국토연구원(200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연구」, p.20 재인용

3.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유지유형과 지역산업연계유형

1)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유지유형⁴⁾

(1) 외국인투자지역조성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의 자본과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세제, 사회간접자본시설, 인력공급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또한 세계의 주요 경제권별 '거점'에 진출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인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거점'을 마련해 주거나 첨단기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성별로 본 외국인투자지역은 생산중심형, 국제교역중심형, 역외금융센터, 복합형 등의 투자자유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성된다.

<표 II-8> 특성별로 본 외국인투자지역

구분	세부유형	공통적 특징
생산중심형 투자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공단형 수출자유지역(Fenced EPZ)(사례:마산,익산, 대만의까오슝) · 광역형 수출자유지역(Unfenced EPZ) · 외국의 선진기술 유치를 위한 특정 공단(사례:대만) ·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첨단산업 단지(사례:일본 테크노폴리스) · 중국의 경제특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무관세수입 · 세제혜택(법인세, 소득세의 3~10년간 면제 또는 감면) · 행정절차 간소화(원스톱서비스) · 우수한 SOC시설 제공및이용에 대한 보조

4) 대구경북연구원, "지역산업발전 전략과 연계한 외자유치 활성화 방안, 2004, pp.209~212 재작성.

<p>국제교역중심형 투자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 자유항(Free Port) · 통과지대(Transit Zone) · 자유구역(Free Perimeter) · 수입촉진지역(Foreign Access Z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내의 수입물품에 대한 각종 세금 면제 · 국내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규제면제
<p>역외금융센터 투자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레인 · 말레이시아 라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업무에 대한 제반규제와 조세를 완화, 철폐
<p>복합형 투자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의 3가지 유형을 종합화 · 국제자유도시 · 국제업무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수입관세의 철폐 · 국제금융활동의 자유보장 ·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의 최소화 및 인센티브

자료 : 대구경북연구원(2004), 「지역산업발전 전략과 연계한 외자유치 활성화 방안」, p.209 재인용

(2) 국제투자자유도시 조성

국제투자자유도시란, '외국으로부터 사람, 재화, 금융, 자본 등을 유치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제투자자유도시에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금융, 연구, 주거 등 복합기능을 수용하며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복합형 투자자유지역을 의미한다.

국제투자자유도시를 통해 자유무역을 실시함에 있어서 수입관세의 철폐 또는 감면이 보장되고, 외환 거래 자유화를 통한 국제금융활동이 자유 보장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철폐와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국제투자자유도시에서는 국제공항, 국제항만, 첨단 정보통신망, 국제회의장 등 인프라를 완비하여 국제비즈니스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된다. 국제투자자유도시는 국내·외 투자자 등 실수요자 입장에서 개발함으로써 국내자본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므로 투자비 조달이 용이할 수 있다.

국제투자자유도시의 제조업 중심의 여타 투자자유지역과는 달리 국제공항, 국제항만, 지역개발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물류·무역·첨단산업·기술연구·금융 중심의 도시로 단계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국제투자자유도시의 선진국 수준의 개방화를 선도하는 시범적 경제자유도시를 말한다. 시범적 경제자유도시에는 국제업무, 물류, 생산, 연구, 관광 등 복합기능을 갖추고, 세계적 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경쟁하는 거점형 투자자유도시를 육성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부산지역과 같이 동아시아 경제권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투자자유도시와 같은 글로벌한 도시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3) 민간자본사업 투자유치 조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자본사업은 외국기업 및 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으로써 지분참여 및 채권발행을 통한 직접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에 의한 간접금융 등의 방식으로 구분된다. 지자체 입장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외국자본을 유치할 경우 현 국가신용도와 여러 상황들을 조합해볼 때 지분참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채권발행 순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II-9〉 민자유치사업 관련 외국자본 유치유형

구분	직접금융		간접금융
	지분참여	채권발행	Project Financing
유치방식	지분참여	채권발행	Project Financing
자금성격	자본	부채	부채
경영참여	참여	참여안함	참여안함
만기	없음	만기일시불	있음(조정가능)
원금상환	이익배당	이자지급(정율)	분할상환가능
자본비용	필요	필요	이자지급(재협상가능)
차주(사업)지명도	없음	있음	불필요

자료: 대구경북연구원(2004), 「지역산업발전 전략과 연계한 외자유치 활성화 방안」, p.209 재인용

(4)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 조성

지역차원의 제조업중심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속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정립과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행사 가능성이 높은 투자로 분류된다. 지자체의 제조업중심 투자유치형태는 신규회사설립 및 확장, 기존기업의 인수 및 합병, 모기업 및 관련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 대부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소유권비율에 따라 단독투자(100%)와 합작투자로 구분되며, 합작투자는 그 소유지분 정도에 따라 다수소유(51~99%), 동등소유(50%), 소수소유(1~49%)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초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장악하는 이른바 '세계시장 과점화'현상은 M&A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OECD국가들에게 보편화된 인수 및 합병(M&A)에 의한 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전면 허용됨으로서 자본력과 경영능력 이외에 다른 특정한 기술적 경쟁우위 없이 외국기업을 매수하여 적극적으로 시장과 기술에 접근하며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민간항공기분야나 통신연계, 아크릴수지분야, 컴퓨터업계 등으로써 몇몇 다국적 기업이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 사업교환 등의 방식으로 통합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산업연계유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지역업체들 간 관계유형을 발전적 모형과 의존적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 우선, 발전적 모형(developmental model)은 지역연계에 있어서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협력형태로써 장기적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가지고 연계해 나가면서 지역기업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한다. 지역경제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연대감 측면에서 보면 기업운영에 대한 지역통제가 용이하고, 지역화수준이 높아서 관리기능을 고도 분산해야 한다. 둘째, 의존적 모형(dependency model)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지역기업 간 불평등 교역관계를 형성하며, 지역기업에 하청을 줌으로써 비용 최소화를 강조하면서 지역기업과 수직적 통제 및 관계를 유지한다. 지역경제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연대감 측면에서 보면 분공장(branch plant)이 조직내부로부터 통제가 되므로 지역화수준이 대체로 낮으므로 수직적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표 II-10>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가설적 지역연계 유형

구분	발전적 모형(developmental model)	의존적 모형(dependency model)
지역연계유형	· 협력적, 기술적, 신뢰 - 기술과 지식공유 · 협력형태	· 불평등 교역관계 · 지역기업에 하청 · 비용최소화 강조
연계의 지속도	· 장기적인 파트너 쉽	· 단기계약
유연성 정도	· 제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공급자와 긴밀한 관계유지	· 지역기업과 약한 관계
지역경제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연대감	· 지역화수준 높음 · 관리기능 고도분산 : 기업운영에 대한 지역통제 용이	· 지역화수준 낮음 · 수직적 통제 : 분공장(branch plant)이 조직 내로부터 통제
지역기업에 대한 혜택	· 지역기업에 기술, 전문성 이전 · 지역기업이 제품개발 관여	· 지역기업에 낮은 기술수준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계약
창출 고용 인력 수준(질)	· 고도숙련을 포함해 다양한 수준의 고용창출	· 저 숙련 고용창출
지역 경제 성장 전망	· 자족적 성장전망 : 신산업집적에 기반 한 확장에 의한 성장 가능기대	· 지역성장은 지역외부의 다국적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의존

자료: 국토연구원(200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연구」, p.28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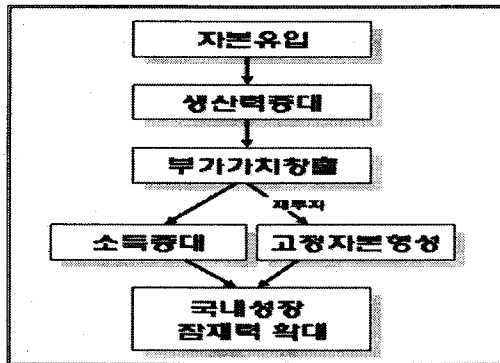
5) Turok, "Inward investment and local linkages : How deeply embedded is Silicon Glen?", Regional Studies, vol.27, 1993, pp.401~417, 국토연구원(2002), 전거서.

4. 외국인직접투자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첫째,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의 자본유입으로 인해 생산력증가, 고용, 부가가치 등을 창출하고, 이는 국내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즉,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국내투자확대→자본스톡증대로 이어지며, 외국기업의 우수한 경영관리기법과 마케팅노하우, 생산기술도 도입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여 결국 국내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게 된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해 자본, 기술, 고용기회를 창출하여 고용기회를 증대시키고, 임금수입에 의한 개인생활의 향상을 가져오게 되어 국가전체의 임금수준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내에 교육, 기술 등의 수준이 높고 내부역량이 축적되어 있을 경우 투자자본의 상호작용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크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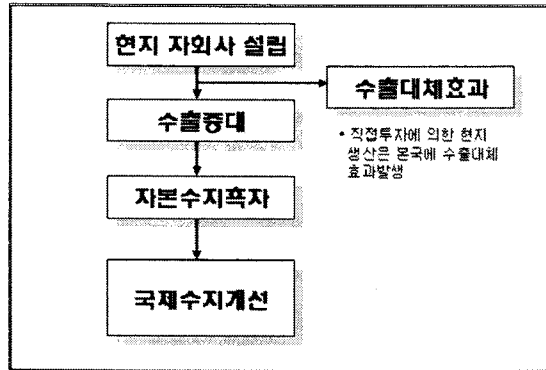


<그림 II-1> 경제성장 촉진 효과

둘째,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의 중요한 대외거래 수단으로 교역을 활성화하고, 무역이익을 확대하여 무역규모 확대를 가져오게 하여 자본수지,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등과 같은 국제수지효과로 이어진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단기적인 자금유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수출증대, 수입대체효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무역수지 흑자로 이어지면서 국제수지효과와 연계된다.

그러나 자칫 원자재나 기타 수입물의 수입, 기술도입에 따른 로열티지급 및 과실송금, 해외차입 등으로 인해 무역외수지에 적자를 초래하여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현지생산이 본국으로부터 생산요소 등 원자재의 수입을 필요로 한다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오히려 수입증대를 불러 일으켜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투자유치국의 경제상황 및 정책, 국제금융시장의 여건, 기업의 성향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며 이는 장·단기적으로도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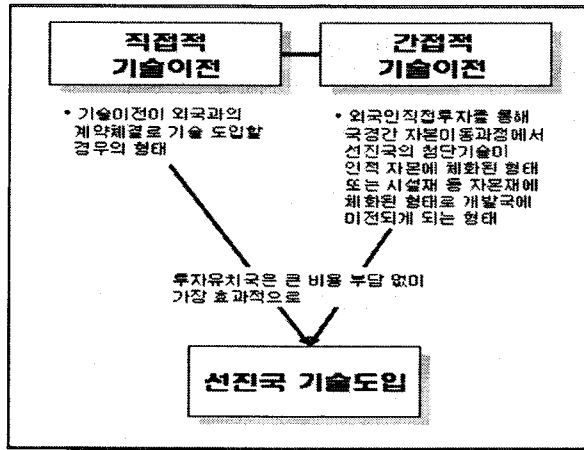
〈그림 11-2〉 국제수지효과

셋째, 외국인직접투자는 생산증대와 연관 산업 활성화로 직·간접 고용창출효과⁶⁾가 발생한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갖는 현지국의 고용창출의 정도는 국내 상황,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생산방식, 현지화의 정도, 그리고 투자의 목적 및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생산방식이 노동집약적일수록 가능한 직원을 현지인으로 채용하고, 부품도 현지국의 생산부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정도가 클수록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넷째,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쟁의 강화를 가져와 투자 유치국의 경제에 외부효과를 파급시킴으로써 간접적 이득을 초래한다.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은 투자 대상국 시장의 진입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 고유의 자산을 소유하고, 또한 투자대상국 시장에 진입하게 되며, 이로 인해 시장경쟁이 강화되면 국내기업은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때 다국적기업의 현지법인은 생산 공정 개선이나 기술수입을 통해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기업도 교육훈련을 지원하거나 다른 다국적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경쟁할 것이다.

다섯째, 외국인직접투자는 기술이전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한 기업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하여 기업의 자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로 체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생산재나 완제품 및 부품의 제공뿐만 아니라 기술, 판매, 경영 및 자금상의 노하우도 제공하는 것이므로 자본, 기술, 경영 등을 하나로 하는 경제협력형태이다.

6)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현지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과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현지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유발되는 효과를 말하고, 간접적인 고용창출효과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의해 생산된 재화의 유통, 분배 등 연관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유발되는 효과라고 할 수 있음



<그림 II-3> 기술이전형태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도입된 자본, 기술, 경영 등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 다른 기업에 파급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외국기업이 현지시장에 익숙한 현지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보다 우월한 기업특유의 우위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한다.

2) 부정적 효과

첫째,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올 때 기업규모가 초국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거대성을 지닌다면 국가주권침해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초국가적 성격을 갖춘 외국기업은 거대한 활동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정치적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본국에 있는 본사 이익을 위해 개개의 자회사 이익이나 성장 추구보다는 기업전체로서의 이익향상을 요구하는 전략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국의 각종 정책과 조화결여로 이어지거나, 초국가성을 이용하여 국내정책을 선행하거나 무력한 존재로 만들 수 있으므로 국가주권침해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가 일정한 기간 후에 투자수익의 횡수가 늘어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자본유입보다 유출이 커지게 됨으로써 자본유출문제가 제기된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실질이익의 해외유출, 세금회피 등으로 인해 정상이상의 높은 이익과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수익의 현지 재투자를 요청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

셋째, 적대적 M&A가 본격적으로 허용되면 국내 우량기업들의 인수가 빈번해지게 됨으로 적대적 M&A 증가문제가 발생한다. 우세한 자금력과 기술력,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앞세워 국내 시장 점유율을 급속히 확대하고, 국내 산업기반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자금난으로 핵심사업 및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국내기업의 상황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기술이전이나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진다.

넷째, 주요 업종에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게 되어 향후 독과점 횡포, 급격한 철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국내기업 중에는 외국기업의 진출에 따라 시장을 상실하고, 때로는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이미 화학, 제지, 제약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상태이다. 국익측면에서 본다면 비능률적인 국내기업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외국기업이 대신하는 편이 유리하지만 국민감정의 납득이 필요하다. 또 이들은 국지적인 생산요소시장의 변동에 따라 생산입지를 이동하므로 철수후의 지역경제의 공백에 대한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따른 국내기업의 타격을 완화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거나 또는 산업구조 개선대책을 실시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Ⅲ. 부산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제성 효과분석

1. 부산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추진실적과 입주기업연향

1) 부산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추진실적

부산지역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가 1991년 12월 정부로부터 과학산업연구단지로 지정받고 난 뒤 첨단생산, 전문교육·R&D센터육성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첨단산업 및 R&D센터로 개발 진행 중이다. 이곳을 2005년 11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공시됨으로써 외국인전용 투자지역조성을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곳은 외국인 전용단지과 하이테크 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 디지털 생산기술지원센터 등 각종 R&D센터가 건립되어 있다. 그리고 부산과학산업단지 주변에 위치하면서 편리한 교통과 뛰어난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미음과 송정지구는 지역경제생활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지사지역에는 자동차, 기계, 조선, 첨단소재 및 부품 산업의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한국 최고의 제조업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일반산업용지가 100% 분양 완료된 부산과학산업단지를 필두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지사지역은 명지, 두동, 용동 지역 등과 함께 신항만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방사형 기능을 유지한 형태로 확산·개발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항만물류, 유통기능을 핵심적으로 역할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방사형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신항만 지역 주변으로 지사지역의 외국인전용첨단산업유치, 명지지역의 항공물류 및 첨단부품·소재공급기지육성, 외국인주거공간확보, 두동지역의 메카트로닉스산업 및 전문교육R&D센터개발, 용동지역의 물

류·유통 및 여가·휴양거점으로써의 개발 등과 시너지효과 발생이 예상된다.

<표 III-1> 부산·진행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실적

분야	투자금액	투자기업(백만불)	주요내용
첨단산업 (15건)	8.5억불	Calsonic Kansei(2.5)	'04.5 자동차엔진부품공장, 르노삼성공장내
		Lock&Stitch(3)	'04.10 볼트생산, 신호산단
		Renault-Samsung(600)	'04.11 엔진공장 증설투자, 신호산단
		Tox Korea(1.6)	'05.9 특수나사생산, 신호산단
		NKCF(50)	'05.5 MOU, CNG 운송용기생산, 과학산단 76,033m ²
		Balzers(3)	'05.7 MOU, 표면처리코팅공장, 과학산단 82,645m ²
		AMT(60)	'05.9 MOU, 알루미늄휠 생산, 과학산단 33,058m ²
		EZUMI(6.6)	'05.11 MOU, 엔진커버생산, 과학산단 9,917m ²
		SKF(43)	'05.11 MOU, 자동차베어링생산, 과학산단 49,587m ²
		S사(5)	'06.2 MOU, Nano Coating 생산, 과학산단 29,587m ²
		YBS(38)	'06.2 MOU, Seamless Pipe 생산, 과학산단 38,347m ²
		SMC(6.9)	'06.2 MOU, 자동차부품생산, 과학산단 6,612m ²
		Hatlapa(4)	'06.3 MOU 조선기자재생산, 과학산단 7,603m ²
		SFS(10)	'06.7 MOU 조선기자재생산, 과학산단 7,273m ²
Visteon(16)	'06.10 MOU 자동차부품생산, 과학산단 19,834m ²		
관광레저 (2건)	3.6억불	SnowBox(200)	'04.12 MOU 실내스키돔 건설, 남산지구 122,315m ²
		Emerson Pacific/Morgan Stanley(160)	'06.5 MOU 리조트건설, 남산지구 727,276m ²
신항만건설 (2건)	28억불	DPW/PSA(20억불)	신항북측 터미널 1단계, 외자지분 55.8%
		ZIM LINE/Bouygues(8억불)	신항남측 터미널 2~3단계, 외자지분16.5%
신항만물류단 지(9건)	3.2억불	BIDC(13)	'05.11 신항북측배후물류부지 1차
		DAISO등 7개 컨소시엄	'06.6 신항북측배후물류부지 2차

2) 부산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 현황

부산지방과학산업단지에는 총1,973,562.6㎡이며, 그 가운데 298,067.7㎡에 해당되는 규모가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조성되고 있다. 임대기간은 총 50년 범위 내이며, 임대료는 약 6천원/3.3058㎡/년이고, 건폐율 80%, 용적률 350%로써, 입주조건은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인 합작기업으로 투자금액이 최소 5천만 원 이상, 입주계약시점까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에 한해 입주 가능하다.

현재 지사지역에는 12개(292,543.5㎡) 외국인투자기업이 준공 및 착공 중이며, 1개의(5,520.7㎡) 기업이 2007년 하반기 중 유치 확정될 예정으로써 총13개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하거나 입주예정이다. 이 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12개 업체의 총투자금액은 407.9백만 불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투자금액은 147.8백만 불로 36.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2개 업체의 고용인원은 1,350명, 예상매출액은 8,123억 원이며, 자동차부품 4개, 조선기자재 3개 업체, 기계부품소재산업 5개 업체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III-2> 지사외국인투자기업의 현황

(단위 : ㎡, 백만불)

업체명	투자국	추진현황	면적	총투자금액	외투자금액	추진일정
S사	홍콩	준 공	9,586.8	5.0	4.0	- 착공('06.5) - 준공(06.9.19)
B사	스위스	준 공	8,264.5	3.0	3.0	- 착공 ('06.7) - 준공(06.9.15)
E사	미국	준 공	75,768.9	80.0	32.0	- 부분준공('07.1.16)
K사	스웨덴	준 공	49,587	43.0	43.0	- 착공 ('06.3.10) - 준공 ('07.1.24)
Z사	일본	준 공	9,917.4	6.6	4.5	- 착공('06.9.11) - 준공(07.2.16)
H사	독일	준 공	7,834.7	4.0	3.0	- 착공('06.12) - 준공(07.4)
V사	미국	준 공	19,834.8	16.0	8.5	- 착공('06.12) - 준공(07.5)
Y사	일본	착 공	38,628.3	193.0	18.0	- 착공('06.12) - 07.9월 준공예정
SS사	미국	착 공	7,272.8	10.0	3.5	- 건축허가(07.3) - 07.9월 준공예정
HI사	일본	입주계약	4,958.7	3.3	2.3	- 07.4월 입주계약 - 07.5월 착공예정

JJ사	노르웨이	MOU	48,277.9	29.0	20.0	- MOU('06.11) - '07.6월 입주계약 예정 - '07.8-9월 착공예정
P사	스위스	MOU	14,396.8	15.0	6.0	- MOU('07.03) - 07.6월 입주계약 예정 - 07.8월 착공예정
12개사	7개국	-	292,543.5	407.9	147.8	
기업A사	독일	유치예정	5,520.7	10.0	5.0	- 07.하반기 착공예정

주: 기업명은 비공개이므로 아니셜로 처리함
 자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부자료 '07.04.30.

2. 입주기업의 타당성효과 분석

일반적으로 경영분석이란, 재무자료나 비재무자료를 분석하여 기업이 과거에 어느 정도의 경영성공을 올렸고,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으며, 미래의 경영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추정 재무제표를 토대로 경영분석을 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을 기계 및 부품소재산업, 자동차부품산업, 조선기자재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재무비율을 분석을 하였다.

1) 수익성비율

(1) 기계부품소재산업의 수익성비율

수익성 비율은 일정기간 총괄적인 경영성공을 나타내는 자산이용의 효율성과 이익창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며, 수익성 비율은 일반적으로 이익관련 항목을 투자자본 또는 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우선, 총자산순이익률을 보면, JJ사는 2007년 7.82%에서 2009년 7.57%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며, Y사는 2007년 0.26%에서 2009년 9.78%로 높은 수익성을 예측, S사는 2007년 12.65%에서 2009년 19.62%로 가장 높은 수익성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총자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총자산 영업이익률을 보면, JJ사는 2007년 11.66%에서 2009년 11.22%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며, Y사는 2007년 0.53%에서 2009년 10.18%로 수준을 예측, S사는 2007년 16.26%에서 2009년 25.31%로 가장 높은 수익성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총자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보면, JJ사는 2007년 82.26%에서 2009년 87.10% 높은 수익성을 예측하고 있으며, Y사는 2007년 0.71%에서 2009년 32.00%로 수준을 예측, S사는 2007년 60.00%에서 2009년 120.00%로 높은 수익성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자기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순이익을 올리

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총자본 경상이익률을 보면, JJ사는 2007년 25.18%에서 2009년 23.96%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며, Y사는 2007년 0.73%에서 2009년 25.53% 수준의 수익성을 예측, S사는 2007년 61.07%에서 2009년 45.34%로 높은 수익성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총자본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경상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보면, JJ사는 2007년 8.97%에서 2009년 7.69%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며, Y사는 2007년 2.00%에서 2009년 8.33% 수준의 수익성을 예측, S사는 2007년 10.25%에서 2009년 10.32%로 가장 높은 수익성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기업경영활동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매출액 경상이익률을 보면, JJ사는 2007년 8.38%에서 2009년 7.21%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며, Y사는 2007년 1.00%에서 2009년 8.00% 수준의 수익성을 예측, S사는 2007년 9.97%에서 2009년 10.00%로 가장 높은 수익성을 예측하고 있다.

일곱째, 매출액 순이익률을 보면, JJ사는 2007년 6.02%에서 2009년 5.19%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며, Y사는 2007년 1.00%에서 2009년 8.00% 수준의 수익성을 예측, S사는 2007년 7.98%에서 2009년 8.00%로 높은 수익성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높은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계부품소재산업의 향후 수익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산지역의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3〉 기계부품소재산업의 수익성비율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JJ사	총자산순이익률	7.82	7.26	7.57
	총자산영업이익률	11.66	11.11	11.22
	자기자본순이익률	82.26	79.03	87.10
	총자본경상이익률	25.18	23.39	23.96
	매출액영업이익률	8.97	8.04	7.69
	매출액경상이익률	8.38	7.40	7.21
	매출액순이익률	6.02	5.25	5.19
Y사	총자산순이익률	0.26	4.70	9.78
	총자산영업이익률	0.53	4.92	10.18

	자기자본순이익률	0.71	14.00	32.00
	총자본경상이익률	0.73	12.28	23.53
	매출액영업이익률	2.00	7.33	8.33
	매출액경상이익률	1.00	7.00	8.00
	매출액순이익률	1.00	7.00	8.00
S사	총자산순이익률	12.65	16.54	19.62
	총자산영업이익률	16.26	21.15	25.31
	자기자본순이익률	60.00	88.00	120.00
	총자본경상이익률	61.07	52.18	45.34
	매출액영업이익률	10.25	10.23	10.32
	매출액경상이익률	9.97	10.00	10.00
	매출액순이익률	7.98	8.00	8.00

주)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100), 총자산영업이익률(=영업이익/총자산),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본총계*100), 총자본경상이익률(=경상이익/자본총계*100),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당기매출액*100), 매출액경상이익률(=경상이익/당기매출액*100) 매출액순이익률(=당기순이익/당기매출액*100)

(2) 자동차부품산업의 수익성비율

우선, 총자산 순이익률을 보면, E사는 2007년 4.64%에서 2009년 11.38%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총자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총자산 영업이익률을 보면, E사는 2007년 7.53%에서 2009년 14.38%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총자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보면, E사는 2007년 12.33%에서 2009년 63.33%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자기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총자본 경상이익률을 보면, E사는 2007년 10.98%에서 2009년 28.92%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총자본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경상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보면, E사는 2007년 10.00%에서 2009년 10.00%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며, V사는 2007년 4.90%에서 2009년 7.00%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기업경영활동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매출액 경상이익률을 보면, E사는 2007년 6.17%에서 2009년 7.92%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며, V사는 2007년 3.06%에서 2009년 7.05% 수준의 수익성을 예측하고 있다.

일곱째, 매출액 순이익률을 보면, E사는 2007년 6.17%에서 2009년 7.92%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며, V사는 2007년 2.14%에서 2009년 4.93% 수준의 수익성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높은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동차부품산업의 향후 수익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산지역의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4〉 자동차부품산업의 수익성비율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E사	총자산순이익률	4.64	10.54	11.38
	총자산영업이익률	7.53	13.63	14.38
	자기자본순이익률	12.33	43.33	63.33
	총자본경상이익률	10.98	27.84	28.92
	매출액영업이익률	10.00	10.00	10.00
	매출액경상이익률	6.17	7.74	7.92
	매출액순이익률	6.17	7.74	7.92
V사	매출액영업이익률	4.90	4.45	7.00
	매출액경상이익률	3.06	2.55	7.05
	매출액순이익률	2.14	1.78	4.93

주)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100), 총자산영업이익률(=영업이익/총자산),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본총계*100), 총자본경상이익률(=경상이익/자본총계*100),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당기매출액*100), 매출액경상이익률(=경상이익/당기매출액*100) 매출액순이익률(=당기순이익/당기매출액*100)

(3) 조선기자재산업의 수익성비율

우선, 총자산순이익률을 보면, SS사는 2007년 30.48%에서 2009년 41.28% 높은 수익성을 예측하고 있으며, S&W사는 2007년 30.19%에서 2009년 36.67%로 높은 수익성을 예측, H사는 2007년 4.78%에서 2009년 11.84%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총자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총자산 영업이익률을 보면, SS사는 2007년 53.12%에서 2009년 70.34% 가장 높은 수익성을 예측하고 있으며, S&W사는 2007년 50.94%에서 2009년 56.67%로 높은 수익성을 예측, H사는 2007년 4.88%에서 2009년 13.45%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총자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영업이익을 올리

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보면, SS사는 2007년 132.00%에서 2009년 156.55%로 가장 높은 수익성을 예측하고 있으며, S&W사는 2007년 28.57%에서 2009년 38.60%로 높은 수익성을 예측, H사는 2007년 6.02%에서 2009년 28.61%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자기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총자본 경상이익률을 보면, SS사는 2007년 75.86%에서 2009년 58.93%로 가장 높은 수익성을 예측하고 있으며, S&W사는 2007년 44.64%에서 2009년 44.44%로 높은 수익성을 예측, H사는 2007년 5.68%에서 2009년 18.83%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총자본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경상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보면, SS사는 2007년 16.43%에서 2009년 17.21%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며, S&W사는 2007년 19.29%에서 2009년 17.00%로 수준을 예측, H사는 2007년 5.00%에서 2009년 5.00% 수준의 수익성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기업경영활동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매출액 경상이익률을 보면, SS사는 2007년 12.57%에서 2009년 13.47%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며, S&W사는 2007년 17.86%에서 2009년 14.00%로 높은 수익성을 예측, H사는 2007년 4.90%에서 2009년 4.40% 수준을 예측하고 있다.

일곱째, 매출액 순이익률을 보면, SS사는 2007년 9.43%에서 2009년 10.10%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며, S&W사는 2007년 11.43%에서 2009년 11.00%로 높은 수익성을 예측, H사는 2007년 4.90%에서 2009년 4.40%로 높은 수익성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높은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선기자재산업의 향후 수익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산지역의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5〉 조선기자재산업의 수익성비율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SS사	총자산순이익률	30.48	35.41	41.28
	총자산영업이익률	53.12	61.71	70.34
	자기자본순이익률	132.00	129.40	156.55
	총자본경상이익률	75.86	58.40	58.93
	매출액영업이익률	16.43	16.11	17.21
	매출액경상이익률	12.57	12.32	13.47
	매출액순이익률	9.43	9.24	10.10

S&W사	총자산순이익률	30.19	27.27	36.67
	총자산영업이익률	50.94	47.73	56.67
	자기자본순이익률	28.57	24.49	38.60
	총자본경상이익률	44.64	34.62	44.44
	매출액영업이익률	19.29	14.00	17.00
	매출액경상이익률	17.86	12.00	14.00
	매출액순이익률	11.43	8.00	11.00
H사	총자산순이익률	4.78	9.02	11.84
	총자산영업이익률	4.88	10.83	13.45
	자기자본순이익률	6.02	17.89	28.61
	총자본경상이익률	5.68	14.51	18.83
	매출액영업이익률	5.00	5.00	5.00
	매출액경상이익률	4.90	4.17	4.40
	매출액순이익률	4.90	4.17	4.40

주)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100), 총자산영업이익률(=영업이익/총자산),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본총계*100), 총자본경상이익률(=경상이익/자본총계*100),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당기매출액*100), 매출액경상이익률(=경상이익/당기매출액*100) 매출액순이익률(=당기순이익/당기매출액*100)

2) 유동성비율

유동성이란, 단기에 현금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유동성분석의 목적은 유동성평가를 통하여 단기 채무에 대한 지급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있다. 아무리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라도 유동성이 부족하여 단기채무의 지급능력이 없으면 최악의 경우 흑자도산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유동성비율은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와 같은 기업의 신용제공자들이 가장 관심이 갖는 비율 중의 하나이다.

(1) 기계부품소재산업의 유동성비율

우선, 유동비율을 보면, JJ사는 2007년 171.82%에서 2009년 169.20%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예측하고 있으며, Y사는 2007년 62.30%에서 2009년 138.36%로 높은 유동성을 예측, S사는 2007년 74.06%에서 2009년 97.29% 수준의 유동성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기계 및 부품소재산업의 높은 유동성으로 단기채무지급능력이 높으므로 단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상기업의 안정성이 높다.

둘째, 당좌비율은 유동비율보다 유동성 정도를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로서 JJ사 2007년 130.91%에서 2009년 125.20%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예측하고 있으며, Y사는 2007년 49.18%에서 2009년 109.59%로 높은 유동성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계부품소재산업의 향후 유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단기채무지급능력이 높으므로 단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상기업의 안정성이 높다.

〈표 III-6〉 기계부품소재산업의 유동성비율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사	유동비율	171.82	171.74	169.20
	당좌비율	130.91	128.26	125.20
Y사	유동비율	62.30	132.81	138.36
	당좌비율	49.18	112.50	109.59
S사	유동비율	74.06	82.55	97.29

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100)

(2) 자동차부품산업의 유동성비율

우선, 유동성비율을 보면, E사는 2007년 37.31%에서 2009년 104.25%로 높은 유동성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부품산업의 높은 유동성으로 단기채무지급능력이 높으므로 단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상기업의 안정성이 높다.

둘째, 당좌비율은 유동비율보다 유동성 정도를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로서 E사 2007년 14.23%에서 2009년 44.25% 수준의 유동성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동차부품산업의 향후 유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단기채무지급능력이 높으므로 단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상기업의 안정성이 높다.

〈표 III-7〉 자동차부품산업 유동성비율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E사	유동비율	37.31	63.06	104.25
	당좌비율	14.23	16.39	44.25

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100)

(3) 조선기자재산업의 유동성비율

우선, 유동성비율을 보면, SS사는 2007년 124.40%에서 2009년 1,166.67% 높은 유동성을 예측하고 있으며, S&W사는 2007년 366.67%에서 2008년 275.00%로 높은 유동성을 예측, H사는 2007년 690.00%에서 2009년 332.38% 높은 유동성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조선기자재산업의 높은 유동성으로 단기채무지급능력이 높으므로 단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상기업의 안정성이 높다.

둘째, 당좌비율은 유동비율보다 유동성 정도를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로서 SS사 2007년 67.00%에서 2009년 650.00% 가장 높은 유동성을 예측하고 있으며, S&W사는 2007년 266.67%에서 2008년 100.00%로 높은 유동성을 예측, H사는 2007년 196.79%에서 2009년 196.96% 높은 유동성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선기자재산업의 향후 유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단기채무지급능력이 높으므로 단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상기업의 안정성이 높다.

〈표 III-8〉 조선기자재산업의 유동성비율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SS사	유동비율	124.40	287.50	1166.67
	당좌비율	67.00	162.50	650.00
S&W사	유동비율	366.67	275.00	-
	당좌비율	266.67	100.00	-
H사	유동비율	690.00	354.41	332.38
	당좌비율	196.79	196.88	196.96

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100)

3) 레버리지비율

레버리지비율은 기업이 조달한 자본 중에서 타인자본에 의존하는 정도와 장기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써, 부채의 의존이 높은 기업은 높은 이자보상비율을 가질 것이며 경기가 불황일 때 타격을 클 것이고 그들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영업위험이 높아진다.

(1) 기계부품소재산업의 부채비율

우선, 부채비율을 보면, JJ사는 2007년 596.77%에서 2009년 645.16% 높은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며, Y사는 2007년 172.14%에서 2009년 184.67%로 높은 부채비율을 예측, S사는 2007년 351.50%에서 2009년 280.90%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타인자본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

둘째, 고정비율을 보면, JJ사는 2007년 74.05%에서 2009년 72.05% 높은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며, Y사는 2007년 141.08%에서 2009년 140.79%로 높은 수익성을 예측, S사는 2007년 72.63%에서 2009년 139.80%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자금조달과 운영의 안정성이 낮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계부품소재산업의 향후 레버리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타인자본의 의존도가 높고 자금조달 및 운영이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기계부품소재산업 레버리지비율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JJ사	부채비율	596.77	612.90	645.16
	고정비율	74.05	73.68	72.50
Y사	부채비율	172.14	176.00	184.67
	고정비율	141.08	137.12	140.79
S사	부채비율	351.50	321.10	280.90
	고정비율	72.63	97.45	139.80

주)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고정비율(=(고정자산/자본총계*100)

(2) 자동차부품산업의 부채비율

우선, 부채비율을 보면, E사는 2007년 153.33%에서 2009년 333.33%로 높은 부채비율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타인자본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 둘째, 고정비율을 보면, E사는 2007년 152.17%에서 2009년 125.20% 수준의 고정비율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자금조달과 운영의 안정성이 낮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동차부품산업의 향후 레버리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타인자본의 의존도가 높고 자금조달 및 운영이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자동차부품산업의 레버리지비율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이즈미사	부채비율	153.33	253.33	333.33
	고정비율	152.17	132.37	125.20

주)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고정비율=(고정자산/자본총계*100)

(3) 조선기자재산업의 부채비율

우선, 부채비율을 보면, SS사는 2007년 201.00%에서 2009년 25.00% 부채비율 감소를 예측하고 있으며, S&W사는 2007년 5.36%에서 2008년 5.26%로 낮은 부채비율을 예측, H사는 2007년 19.91%에서 2009년 89.68% 높은 부채비율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타인자본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

둘째, 고정비율을 보면, SS사는 2007년 153.53%에서 2009년 817.00% 가장 높은 고정비율을 예측하고 있으며, S&W사는 2007년 1,400.00%에서 2008년 1,500.00%로 높은 고정비율을 예측, H사는 2007년 348.75%에서 2009년 108.86% 높은 고정비율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자금조달과 운영의 안정성이 낮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선기자재산업의 향후 레버리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타인자본의 의존도가 높고 자금조달 및 운영이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조선기자재산업의 레버리지비율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SS사	부채비율	201.00	70.00	25.00
	고정비율	153.53	357.71	817.00
S&W사	부채비율	5.36	14.29	5.26
	고정비율	1400.00	471.43	1500.00
H사	부채비율	19.91	75.00	89.68
	고정비율	348.75	129.12	108.86

주)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 고정비율=(고정자산/자본총계*100)

4) 활동성비율

활동성비율은 기업의 투하된 자본이 일정 기간 중에 얼마나 활발하게 운용되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로써, 자본이나 자산사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으며, 일명 회전율비율이라고도 하는데 활동성비율의 분자에는 매출액을 고정시켜 놓고 분모에는 투하된 자본이나 자산항목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1) 기계부품소재산업의 활동성비율

우선, 총자본회전율을 보면, JJ사는 2007년 300.35%에서 2009년 332.27% 높은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며, Y사는 2007년 72.99%에서 2009년 294.12%로 높은 회전율을 예측, S사는 2007년 612.38%에서 2009년 453.45%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총자본의 활용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자기자본회전율을 보면, JJ사는 2007년 1,366.13%에서 2009년 1,677.42% 높은 회전율을 예측하고 있으며, Y사는 2007년 71.43%에서 2009년 400.00%로 높은 회전율을 예측, S사는 2007년 752.00%에서 2009년 1,500.00%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거나 과다하게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정자산회전율을 보면, JJ사는 2007년 309.12%에서 2009년 358.62% 높은 회전율을 예측하고 있으며, Y사는 2007년 29.41%에서 2009년 153.85%로 높은 회전율을 예측, S사는 2007년 294.56%에서 2009년 381.97% 수준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이용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계부품소재산업의 향후 활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총자본의 활용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III-12> 기계부품소재산업의 활동성비율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JJ사	총자본회전율	300.35	316.27	332.27
	자기자본회전율	1366.13	1504.84	1677.42
	고정자산회전율	309.12	333.21	358.62
Y사	총자본회전율	72.99	175.44	294.12
	자기자본회전율	71.43	200.00	400.00
	고정자산회전율	29.41	82.87	153.85
S사	총자본회전율	612.38	521.82	453.45
	자기자본회전율	752.00	1100.00	1500.00
	고정자산회전율	294.56	351.55	381.97

주) 총자본회전율(=매출액/자본총계*100), 자기자본회전율(=매출액/자본총계*100), 고정자산회전율(=매출액/고정자산*100)

(2) 자동차부품산업의 활동성비율

우선, 총자본 회전을 보면, E사는 2007년 300.35%에서 2009년 332.27%로 높은 활동성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총자본의 활용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자기자본 회전을 보면, E사는 2007년 1,366.13%에서 2009년 1,677.42% 수준의 활동성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거나 과다하게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정자산 회전을 보면, E사는 2007년 309.12%에서 2009년 358.62% 수준의 활동성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이용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동차부품산업의 향후 활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총자본의 활용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III-13〉 자동차부품산업의 활동성비율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E사	총자본회전율	300.35	316.27	332.27
	자기자본회전율	1366.13	1504.84	1677.42
	고정자산회전율	309.12	333.21	358.62

주) 총자본회전율(=매출액/자본총계*100), 자기자본회전율(=매출액/자본총계*100), 고정자산회전율 (=매출액/고정자산*100)

(3) 조선기자재산업의 활동성비율

우선, 총자본회전을 보면, SS사는 2007년 603.45%에서 2009년 437.54% 활동성이 높게 예측하고 있으며, S&W사는 2007년 250.00%에서 2008년 317.46%로 활동성이 높게 예측, H사는 2007년 115.83%에서 2009년 427.85%로 높은 활동성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총자본의 활용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자기자본회전을 보면, SS사는 2007년 1,400.00%에서 2009년 1,550.00% 활동성이 높게 예측하고 있으며, S&W사는 2007년 250.00%에서 2008년 350.88%로 활동성이 높게 예측, H사는 2007년 122.81%에서 2009년 650.00%로 높은 활동성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거나 과다하게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조선기자재산업의 고정자산회전을 보면, SS사는 2007년 453.66%에서 2009년 758.87% 활동성이 높게 예측하고 있으며, S&W사는 2007년 333.33%에서 2008년 444.44%로 활동성이 높게 예측, H사는 2007년 176.84%에서 2009년 665.77%로 높은 활동성을 예측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이용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선기자재산업의 향후 활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총자본의 활용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III-14〉 조선기자재산업의 활동성비율

(단위 : %)

구	분	2007	2008	2009
SS사	총자본회전율	603.45	473.93	437.54
	자기자본회전율	1400.00	1400.00	1550.00
	고정자산회전율	453.66	559.11	758.87
S&W사	총자본회전율	250.00	288.46	317.46
	자기자본회전율	250.00	306.12	350.88
	고정자산회전율	333.33	454.55	444.44
H사	총자본회전율	115.83	348.27	427.85
	자기자본회전율	122.81	429.47	650.00
	고정자산회전율	176.84	443.48	665.77

주) 총자본회전율(=매출액/자본총계*100), 자기자본회전율(=매출액/자본총계*100), 고정자산회전율 (=매출액/고정자산*100)

3.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부산지역에 투자한 외국인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산에 진출하였다. 또한 100% 외자유치가 아니라 50% 지분을 가지고 부산기업이 50% 지분을 가지는 합작형식의 기업형태이다. 그러므로 부산에 들어오는 외국인기업들의 경영실적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산지역 외국인투자지역에 유치된 13개 업체들을 중심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중심으로 각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익성 항목은 전반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재투자를 통하여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유동성 항목은 전반적으로 높아 유동성부족이나 흑자도산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레버리지비율 항목은 전반적으로 높아 타인자본의 의존도가 높고 자금조달 및 운영이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동성비율 항목은 전반적으로 높아 자본이나 자산사용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생산거점, 시장개척, 첨단기술지향, 신설투자 등의 형태로 입지를 결정하는데, 부산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와 국내근로자가 잘 조합되어 있고, 외국인투자지역이라는 공장용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제품의 가격이나 접근성 및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산거점의 형태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외국인투자지역에 외국기업이 유치되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적절하고 부산지역이지만 울산과 경남 접경지역이므로 시장확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산을 기점으로 가까운 중국시장으로 판로확보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도 외국기업들이 부산에 입지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산지역은 중국과 일본의 교두보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부품소재산업에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6가지 형태로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산'이라는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획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는 FTA체결이 가시화 및 가속화되면서 하나의 지구촌으로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경제측면에서도 글로벌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차원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가 부산지역에도 활발하게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 및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산'이라는 name value를 독창적으로 기획하고 홍보하여 외국기업이 부산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FTA체결로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국가를 찾기보다는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찾아 외국인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다. 현재까지 금융·외환에 대한 규제완화, 투자개방업종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은 상당히 진전을 보여 왔으나 업무처리시간단축, 행정절차 간소화 등과 같은 행정업무에 대한 처리능력에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종 행정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Service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해 외국인입장에서 투자환경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투자절차를 이행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장치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해당 지역에 입지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주환경에 대한 문제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첫 번째 꼽는 것으로 교육시설의 불편성을 비롯한 외국인 생활여건이 미비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들을 위한 투자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외국인전용 주거지역을 설정하여 외국인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부산시의 의지가 되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기획이 필요하다.

넷째, 고기술업종 중심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강구되어야 한다. 부산지역에 특화되

면서 규모가 큰 대기업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 지역차원에서 세계화의 물결에 살아남고, 해외시장 또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소재산업과 같이 기술격차를 유지 또는 확대할 수 있는 고기술업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유치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에 대한 투자유치노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경기도의 LG-Philips와 같은 제대로 된 대기업 한 개를 유치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부산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비록 기업규모는 작지만 건설한 여러 업체들을 입주시키는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외국인투자기업들을 위한 종합적 투자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활발히 투자지원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간소화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행정지원, 해외홍보, 고충 및 애로사항 상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차원에서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홍보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며, 체계적으로 홍보계획을 조직화하고 있지 않고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에 상당히 효과가 크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정부차원에 맡기지 말고 지역차원에서 업종별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홍보책자를 마련하던지 홍보계획에 대한 조직화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 고충, 행정지원절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유치 후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해서 기업이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영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은 투자업종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투자우선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대하고 있다. 특히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공해 등과 같은 오염물질발생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에 적합한 환경시설을 설치하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대부분의 행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어 해당 지역개발청에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 지방기관의 역할이란 것이 위임사항에 해당되는 것만 처리하게 되어 있다. 영국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사후관리 지원 시스템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타 국가들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지원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부산지역의 외국인투자지역을 중심으로 입주기업들에 대한 재무구조를 분석하고 향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기준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지사외국인투자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외

국인투자기업들은 대부분 부산시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부산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지역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파악하여 기업의 수익성, 활동성, 부채비율, 안정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입주기업들이 견실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지역경제와 직결되어 불안정한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잘못된 입주로 인해 지역경제가 오히려 큰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도 적잖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에 이어 EU, 중국, 일본 등 FTA체결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유치에 매달리게 된다면 부실한 외국기업들로 인해 지역경제에도 적신호가 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기업들이 유치되었을 때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분석도 중요하지만, 이들 기업들의 정확한 기업구조를 파악하여 한 지역에 입주되었을 때 안정된 상태로 경영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유치된 외국기업의 재무구조분석을 통해 기업의 건전성이 유무를 알아보고, 향후 외국기업들을 유치할 때 하나의 잣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향후 외국기업들의 부산지역 유치결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화된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국토연구원,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연구”, 2002.
- 대구경북연구원, “지역산업발전 전략과 연계한 외자유치 활성화 방안”, 2004.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부자료, 2007.
- e-클러스터부산,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07.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규모현황」, 2007.
- 충북개발연구원,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 및 충북경제 파급효과 분석”, 2006.
- 한국은행,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 및 과제」, 2006.
- BJFEZ,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백서」, 2006.
- Turok, “Inward investment and local linkages : How deeply embedded is Silicon Glen?”, *Regional Studies*, vol.27, 1993.